

韓東錫 易學思想의 특징*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 韓醫學古典研究所²

白裕相^{1, 2 **}

A Special Characteristics of Han Dongseok's Thought about Change(易)

Baik You-sang^{1, 2 **}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Han Dongseok advocated his own unique viewpoint about Universal Revolution based on Jeong-yeok(正易), and newly explained Exchange between Metal and Fire[金火交易]. Although he was not a researcher that had developed Jeong-yeok(正易), he has been judged as a utilitarian that tried to apply Change theory[易學] to realistic field called Oriental Medicine.

The reason that such efforts are valuable is that he extended one of cosmological theory that is to say Jeong-yeok(正易) to the exchange of human body based on space-time progress. Theoretically he proved Jeong-yeok(正易) with the thought that heaven and human beings correspond to each other, realistically he showed turning point that as a main agent in Universal revolution we can change our own lives, in 『The Principles of Universal Revolution』, which is his most famous work.

Key Words : Han Dongseok, Jeong-yeok(正易), Universal Revolution

I. 序論

韓東錫은 함경남도 함주군 출신으로 韓醫師 활동을 하면서 1968년 58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宇宙變化의 原理』와 『東醫壽世保元註釋』¹⁾을 저술하였다.

* 본 논문은 2009년 12월 18일에 숭실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주역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韓東錫의 易學思想”의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백유상.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baikys@khu.ac.kr Tel: 02-961-0326

접수일(2009년 12월 20일), 수정일(2010년 1월 10일), 게재확정일(2010년 1월 12일)

그 중 『宇宙變化의 原理』는 正易思想을 바탕으로 陰陽五行論을 전개해나간 그의 대표적 저작이다. 현재 韓醫學 또는 正易을 공부하는 자 그리고 後天開關을 신봉하는 종교인들에게 필독서의 하나로 읽혀지고 있다. 韓東錫은 그의 책에서 평생의 유일한 스승이라고 밝힌 『易學原論』의 저자인 三和 韓長庚으로부터 正易을 배웠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黃帝內經』의 運

1) 체질의학을 창시한 李濟馬가 지은 『東醫壽世保元』에 대하여 陰陽五行론의 관점으로 주석한 책으로 『宇宙變化의 原理』(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속에도 ‘오행개념의 질량변화(東武의 五行觀)’이라는 제목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氣理論을 결합시켜 그의 독특한 우주론과 인성론을 만들게 된다. 기존의 연구 중에서 楊在鶴은 '정역사상의 현대적 이해'(2003)에서 韓東錫을 李正浩와 함께 正易 연구의 3세대로 분류하면서 "그는 정역의 시스템을 과학철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역의 체계화를 한층 돋보이게 한 학자이다. 그의 책은 정역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宇宙變化의 原理』가 정말로 과학철학적 분석을 통하여 正易을 체계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宇宙變化의 原理』가 正易思想의 어떠한 부분을 부각시켜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黃帝內經』의 運氣思想이 결합하여 기존의 正易思想과 어떠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論

1. 正易思想의 개괄

正易은 一夫 金恒(1826-1898)이 周易 說卦傳의 내용을 재해석하여 正易八卦圖를 제시하면서 易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로 만든 역학이다. 後天開闢을 핵심으로 하는 正易思想은 당시의 신흥종교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교리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³⁾.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金一夫를 종교가가 아닌 易學者로 보고 재평가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⁴⁾.

2) 楊在鶴, 정역사상의 현대적 이해, 주역철학과 문화, 2003. 1. p.246.

3) 윤종빈은 "正易과 周易"(서울, 상생출판, 2009. p.21-35)에서 金一夫가 東學과 같이 구한말에 발생한 신흥종교의 하나인 南學의 제2대교주로 오인되기도 하였으며, 일부의 門人들 가운데 몇몇이 先後天變化原理를 신흥종교운동에 적용하였고, 後天開闢思想을 바탕으로 하는 龜山道 계통의 종교에 의해 지나치게 부각되었다고 설명하였다.

4) 충남대의 이정호는 광복후 正易을 학계에 처음 소개하였으며(正易의 출현과 그 인간혁명에 대하여, 한국학보, 1977. 7. pp.137-149) 이후 충남대를 중심으로 유남상의 "역학의 역수성통원리에 관한 고찰"(충남대인문과학연구소논문집, 1984. 11(1), pp.125-141), 남명진의 "정역사상의 근본문제와 선후천변화원리에 관한 고찰"(종교교육학연구, 1998. 7. pp.7-27), 이현종의 "正易의 한국사상사적 위상"(범한철학, 1999. 20. pp.247-269) "주역의 성명지

1) 先天과 後天

正易에서 바로잡는다는 의미는 無極과 太極의 陰陽運動 변화를 순차적으로 거쳐 다시 無極으로 복귀함을 의미하는데 一夫는 이때 無極 완성의 세계를 후천세계라고 표현하였다. 후천세계의 無極은 始初의 無極과는 달리 모든 현상세계의 모순과 갈등을 융화하여 가장 조화로운 세계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先天과 後天이라는 용어는 『周易』 「文言傳」에 처음 나오는데⁵⁾, 기존 유학의 先天後天說에서는 일반적으로 만물이 생하기 이전 또는 未發의 理의 세계를 先天으로 보았고, 生後 분화 발전하는 삶 자체를 後天으로 보았다. 대표적으로 邵康節은 說卦傳을 해석하면서 제3장은 伏羲卦圖로 상징되는 先天學이며, 제5장은 文王卦圖로 상징되는 後天學으로 보았다⁶⁾. 즉 邵康節은 본체의 영역이 현상세계로 바뀌면서 성장 분화하는 과정이 곧 先天의 伏羲易에서 後天의 文王易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여기에서 先天은 형이상학적 세계이며 시공을 초월한 진리로서 보통 사람이 인식하기 어려운 성스러운 경지를 의미하게 되었다. 修養論의 입장에서 보면 선천세계는 성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상이면 후천세계는 이를 구현하는 삶(또는 시공)인 것이다. 이후 이러한 해석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宋代 朱子の 性理學에서도 先天은 天理의 개념과 결부되어 시공적으로 더욱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다. 즉, 시공을 초월한 理에 대한 강조는 易學 연구에서 先天을 중시하는 경향을 낳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현상세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變易의 의미가 퇴색하게 된 것이다⁷⁾.

리"(범한철학, 2003. 29. pp.157-184) "正易의 간지도수 원리"(동서철학연구, 2003. 27. pp.39-64) 등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楊在鶴의 "정역사상의 현대적 이해"(주역철학과 문화, 2003. 1. pp.215-262)은 正易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으로 폭넓게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다.

5) 『周易』 「文言傳」 "先天而天弗違, 後天而奉天時, 天且弗違, 而況於人乎, 況於鬼神乎."(周易, 서울, 保景文化社, 1986. p.92.)

6) 楊在鶴, 정역사상의 현대적 이해, 주역철학과 문화, 2003. 1. p.222.

7) 물론 周易에서 변화의 관점을 통하여 64괘의 순서를 설명하거나 爻의 변화로 인한 卦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기도 하나 八卦圖의 상으로 표현되는 우주가 질적으로 변환되는

그러나 一夫는 無極의 가치는 항상 동일하나 시간의 변화를 상징하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모순을 극복하여 복귀하게 되는 궁극적인 無極이야말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진정한 無極으로 본 것이다. 즉, 이미 生한 이후의 삶과 그것을 포괄하는 시공의 전개 속에서 다시 先天과 後天을 구분하였으며, 이때의 後天은 현실의 모순을 극복한 새로운 조화에 대한 적극적인 추구를 의미한다. 先天洛書의 세계는 이미 지나간 미래의 象인 반면에 後天河圖의 세계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상으로서 현실의 만물이 이를 지향하고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할 세상인 것이다. 이러한 後天의 지향 속에는 현실 변혁의 의식이 강하게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 변혁의 특징으로 인하여 구한말 당시 몇몇 신흥 종교의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後天開關論 자체는 삶의 현실 속에서 開關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종말론과는 차이가 있다. 새로운 변혁 이후를 꿈꾸는 것보다 현실에서 변혁을 준비하고 완성해 나가는 皇極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다.

2) 正易卦

一夫는 기존에 유학에서 후천세계로 표현하는 洛書의 상극적 모순을 극복하고 正易八卦圖가 가지고 있는 조화로운 새로운 후천세계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후자의 후천세계는 곧 洛書의 象에서 河圖의 象으로 복귀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곧 진정한 변화를 의미하는 變易의 易이라고 본 것이다⁸⁾. 또한 一夫는 이러한 後天易에 대비하여 先天易을 현상의 배후에 있는 법칙성에 따라 반복 교류하는 交易의 易으로 보았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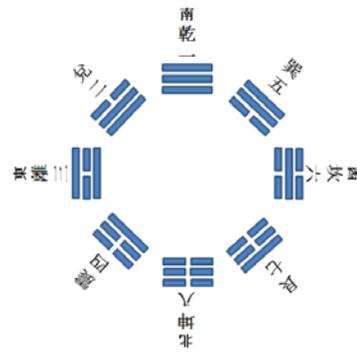


그림 1. 伏羲八卦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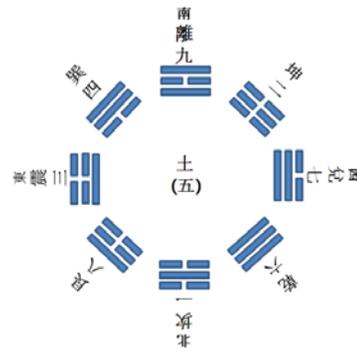


그림 2. 文王八卦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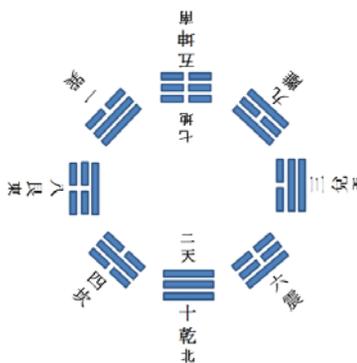


그림 3. 正易八卦圖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楊在鶴도 “정역사상의 현대적 이해”(주역철학과 문화, 2003. 1. p.223)에서 程朱의 성리학자들의 易學觀은 不易에 가깝다고 보았다.

8) 일반적으로 易은 易簡, 不易, 變易으로 풀이하는데 우주의 보편적이고 절대적 원리를 증시한 성리학자들은 周易을 해석할 때 不易의 관점을 가까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 시간 변화의 문제를 소홀함으로 인하여 역동적인 변화를 설명하는데 일부만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9) 楊在鶴, 정역사상의 현대적 이해, 주역철학과 문화, 2003. 1. p.223.

伏羲卦, 文王卦, 正易卦의 순서로 변혁이 이루어지는데 우선 伏羲卦와 文王卦는 卦들이 모두 안에서 밖으로 향하여 분화 발전을 전개해 나간다는 점은 동일

하나, 伏羲卦는 아직 분화성장하기 이전에 탄생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坤北乾南의 방위를 축으로 하여 八卦가 각각 음양이 대대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즉 震(장남)-巽(장녀), 坎(중남)-離(중녀), 艮(소남)-兌(소녀)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는 미래에 다가올 河圖 10수 원리의 완성을 전제로 하여 과거의 의미를 가진 洛書 1太極이 無極으로부터 창조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⁰⁾. 이에 비하여 文王卦는 본질적으로 洛書와 일치하며 각각의 卦가 陰陽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상극관계로 전개되어 있고 乾坤도 서남과 서북으로 치우쳐져 있다. 중앙의 5皇極을 중심으로 生數와 成數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陰陽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완전수인 10數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무한한 성장과 분화를 의미하는 9數의 체제로 되어 있다.

正易卦는 金一夫가 『周易』 「說卦傳」 6장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전개한 것이라 하는데¹¹⁾, 河圖와 같이 완전수인 10이 등장하여 만물을 성숙시키고 완성을 표현한 것이다. 正易卦는 乾卦가 북방에, 坤卦가 남방에 위치함으로써 河圖의 天地否卦象을 극복하고 地天泰卦의 象을 가지고 있으며 艮兌, 坎離, 震巽이 서로 대대하여 조화를 이루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周易』 「說卦傳」 5장에 이은 6장은 文王卦에서 乾坤을 제외한 6卦에서 일어나는 만물에 대한 신묘한 작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故水火相逮, 雷風不相悖, 山澤通氣然後, 能變化, 既成萬物也.”이라 하여 坎-離, 震-巽, 艮-兌의 變易卦¹²⁾의 작용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켜 만물을 완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착안하여 一夫는 正易卦를 구상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논설은 「說卦傳」에서

빠진 乾坤正位論과 더불어 中位正易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¹³⁾. 또한 正易卦의 모든 괘들은 안을 향하고 있어서 분열을 지나 통일을 이루는 상을 가지고 있으며, 乾坤의 내부에 다시 二天과 七地를 설정하여 10乾과 5坤의 내부에 火의 생명의 근원이 깃드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상 3 卦象을 보면 伏羲卦는 生을, 文王卦는 長을, 正易卦는 成을 의미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無極에서부터 분화 발달된 太極과 陰陽運動이 다시 無極으로 복귀함으로써 갈등의 현실에서 벗어나 조화의 세계를 완성함을 표현한 것이다.

3) 三極論

또한 一夫는 三極論을 주장하였는데 伏羲卦는 1太極을 중심으로 만물이 창조되는 것을 표현하였고, 文王卦에서는 5皇極을 중심으로 만물이 성장하는 것을, 正易卦에서는 10무극을 중심으로 만물이 통일되는 것을 설명하였다¹⁴⁾. 性理學에서는 無極과 太極을 동일한 존재의 두 측면으로 보아서 “無極而太極”에 대해서도 ‘無極이면서 太極’이라고 해석하였으니, 無極을 太極이라고 하는 현상세계의 이면에 있는 본체로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一夫는 1太極과 10無極은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宇宙의 運動變化란 곧 無極에서부터 太極으로 바뀌고 다시 太極의 모순을 극복하여 無極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無極과 太極의 상호 전환에 불과한 것이다¹⁵⁾. 生死와 始終을 하나의 단위로 본다면 無極→太極→無極의 과정이 우주가 생명력과 창조력을 완성하는 하나의 마디가 된다.

그러므로 太極과 無極의 상호 전환 중에서 先天에서 後天으로의 변화를 담당하는 5皇極의 역할이 매

10) 楊在鶴. 정역사상의 현대적 이해. 주역철학과 문화. 2003. 1. p.225.

11) 周易. 서울. 保景文化社. 1986. p.640. : 『周易』 說卦傳 제5-6장 “神也者, 妙萬物而爲言者也. 動萬物者, 莫疾乎雷, 橈萬物者, 莫疾乎火, 燥萬物者, 莫燥乎火, 說萬物者, 莫說乎澤, 潤萬物者, 莫潤乎水, 終萬物始萬物者, 莫盛乎艮. 故水火相逮, 雷風不相悖, 山澤通氣然後, 能變化, 既成萬物也.” 이에 대하여 朱子는 “此去乾坤而專言六子, 以見神之所爲然, 其位序亦用上章之說, 未詳其義.”라 하여 그 뜻을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12) 變易卦는 卦象이 서로 상대적으로 대칭되는 卦를 말한다.

13) 李正浩. 正易研究. 서울. 國際大學附設人文社會科學研究所. 1976. p.65. : 正易卦의 위치를 설명한 中位正易 부분에서 雷風中位, 水火相逮, 山澤通氣, 乾坤正位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14) 李正浩. 正易.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8. p.80. : 『正易』 「雷風正位用政數」 “無極而太極十一... 皇極而無極五十.”

15) 李正浩. 正易.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8. p.6. : 『正易』 「十五一言」에서 이를 “一無十無體, 十無一無用.”(태극이 무극이 없으면 본체가 없고, 무극이 태극이 없으면 쓰임이 없다.)라고 표현하였다.

우 중요하다. 皇極의 주도에 의하여 先天이 後天으로 바뀌며 洛書의 原理가 다시 河圖의 原理로 전환되는 것으로서 이미 太極의 陰陽運動 속에 後天을 지향하는 힘의 근원과 원리가 내포되어 변혁을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皇極은 더 나아가 확장과 분열, 통일의 순환적 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리듬을 지속시키며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내는 주재자의 개념으로 확대 인식된다¹⁶⁾. 이러한 광의의 皇極 變化作用을 ‘皇極大道’라 한다.

一夫는 河圖와 洛書의 원리를 각각 倒生逆成과 逆生倒成이라고 표현하여 각각의 변환 과정을 대비하여 설명하였고, 이러한 상호 전환을 모두 皇極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河圖는 未濟의 象을 가지고 있어서 뒤집어져 생하였지만 순리에 거스르면서 완성되니 이것이 바로 先天에서 太極이 생하는 것이고, 洛書는 既濟의 象을 가지고 있어서 거슬러 생하였지만 뒤집어져 완성되니 바로 後天에서 無極이 나오는 것이라 하였다¹⁷⁾.

皇極에 대하여 後天河圖는 先天洛書의 5皇極에 비하여 6皇極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¹⁸⁾ 皇極의 주도하에 先天에서 後天으로 변화하는 것을 ‘包五含六’으로 상징하였다. 이러한 先後天의 변화를 정리하여 「十一歸體詩」에서 “一夫所謂 包五含六，十退一進之位.”라 하였다¹⁹⁾. 즉 十退一進은 無極에서 太極으로 전환하는 ‘無極而太極’의 논리이며 ‘包五含六’은 5皇極에서 6皇極으로 넘어가는 ‘皇極而無極’의 논리라는 것이다²⁰⁾. 韓東錫은 包五含六에 대하여 一夫의

十干原道數로서 설명하기도 하였다²¹⁾.

이상 三極論에는 모든 우주조화의 근원이 되는 無極이 太極과 皇極이라는 힘의 본원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생성하고 변화 통일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無極은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바탕이며 바로 正易思想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기존의 太極 개념 속에 묻혀 있었던 無極의 의미를 부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²²⁾.

4) 金火交易²³⁾

先後天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현실화, 구체화하는 원리가 바로 金火交易이다²⁴⁾. 이는 萬物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성숙시키는 이치이며 皇極이 이를 지향하며 주도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一夫는 河圖의 상을 未濟에 비유하여 倒生逆成이라 하였고 洛書는 既濟에 비유하여 逆生倒成이라 하였다. 洛書는 결과적으로 後天의 無極 지향을 말한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金火交易이 일어난다. 先天洛書의 4,9와 2,7의 뒤바뀐 위치를 다시 河圖의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一夫는 「金火二頌」에서 “氣東北而固守，理西南而交通.”²⁵⁾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交易의 권능을 “理金火之互位，經天地之化權.”²⁶⁾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金火交易의 원리에

1. p.236.

21)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251. : “방위도는 생을 대표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陽에 양수를 붙이고 陰에 음수를 붙여서 음양이 서로 자기본연의 象을 나타내는 것을 표시한 것이지만, 原圖는 成을 대표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甲陽木에 음수를 붙여서 발생의 정지를 표시했고 乙陰木에 양수를 붙여서 陰속에 陽을 머금은 象(임신 같은)을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일부(一夫)는 이상을 가리켜 ‘包五 含六 一進一退’라고 하였다.” 여기서 一夫의 十干原道數의 그림을 十干原圖라 하였다.

22) 楊在鶴. 정역사상의 현대적 이해. 주역철학과 문화. 2003. 1. p.235.

23) 一夫는 「十一言」의 뒤에 偈頌의 형태로 5개의 金火頌을 지어서 적어놓았는데 여기에 金火交易의 핵심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24) 李正浩. 正易.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8. p.26. : 『正易』 「金火五頌」 “嗚呼，金火互逆，不易正易，晦朔弦望進退屈伸，律呂度數造化功用，立，聖人所不言，豈一夫敢言，時命.”이라 하여 금화교역이 절대적 사명임을 말하고 있다.

25) 李正浩. 正易.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8. pp.18-19. : 金火의 交易 속에 開闢의 이치가 들어있음을 말하였다.

16) 楊在鶴. 정역사상의 현대적 이해. 주역철학과 문화. 2003. 1. pp.231-232.

17) 李正浩. 正易.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8. pp.6-7. : 『正易』 「十一言」 “圖書之理，後天先天，天地之道，既濟未濟，龍圖，未濟之象而逆生逆成，先天太極，龜書，既濟之數而逆生倒成，後天無極.”

18) 楊在鶴. 정역사상의 현대적 이해. 주역철학과 문화. 2003. 1. p.236. : 6황극에 대하여 “逆生倒成의 낙서에서는 1과 9의 ‘중(中)’이 5황극인데 비하여, 倒生逆成의 하도에서 10과 1의 中인 황극의 명칭은 5황극이지만 실제로는 6황극이다. 왜냐하면 도생법칙의 10, 9, 8, 7, 6, 5의 순서대로 10 무극에서 6황극까지 헤아리면 도생의 5는 10에서 여섯 번째이므로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6황극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19) 李正浩. 正易.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8. p78.

20) 楊在鶴. 정역사상의 현대적 이해. 주역철학과 문화. 2003.

의하여 先後天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이를 古今天地의 일대장관이며 古今日月の 제일 기이한 광경이라 한 것이다²⁷⁾.

이러한 先後天의 金火交易 변화를 一夫는 「十一歸體詩」에서 “火入金鄉金入火, 金入火鄉火入金, 火金金火原天道, 誰遣龍華歲月今.”²⁸⁾이라 하였다. 火가 金의 고향으로 가는 것은 洛書先天의 질서요, 金이 火의 고향으로 가는 것은 河圖後天의 질서인데 火가 주도권을 가지는지 金이 주도권을 가지는지의 차이가 중요하다. 이는 正易後天이 金[陰]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先天의 抑陽尊陰에서 벗어나 後天의 調陽律陰으로 회복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²⁹⁾. 여기서 原天道는 先天에서 後天으로 변화하는 우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道라는 의미이다³⁰⁾.

5) 曆數論과 지축정립

金火交易을 바탕으로 한 후천개벽은 시간의 연속선상에서의 변혁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일정한 마디를 가진 시간의 변화를 그 배경으로 가지게 된다. 이러한 시간의 변화를 단계별로 曆法으로써 규정한 것이 곧 曆數論(冊曆)이다. 이때의 책력은 단순한 실용적인 달력의 의미가 아니라 우주의 시간 흐름을 규정하는 하나의 原理에 해당한다. 이러한 曆法을 강조함으로써 先後天 사이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적 변화를 질적 양적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易學과의 차이점이다.

邵康節은 이미 元會運世說³¹⁾을 통하여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역사는 순환 반복한다고 주장하여 開闢論의 시간관의 토대를 확립하였다³²⁾. 一夫의 曆數論

도 邵康節의 時間論에 기초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先後天 변화의 과정에 대하여 原曆→閏曆→正曆의 4단계의 순서가 있다고 설명한다. 2단계의 閏曆을 하나로 묶어 본다면 이는 生, 長, 成을 각각 의미하는 伏羲易, 文王易, 正易의 3단계를 그대로 의미한다.

一夫가 말한 後天의 正易은 1년 360일 度數로 정립되어³³⁾ 완전무결한 曆法의 완성을 이룬 것이다. 正曆의 완전성은 原曆을 포함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초월적인 시간의 원리가 된다³⁴⁾. 즉, 375度數를 가진 原曆도 15도가 ‘本體度數’가 되며, 先天의 음양운동 속에서 15도가 9數[陽數-분열을 상징]와 6數[陰數-수렴을 상징]로 분화되어 太陽曆과 太陰曆을 만들어 내는 것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바탕이 되는 우주의 360도에 의해 조절되면서 변혁을 거쳐 正曆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360도 正曆으로 변혁될 수 있는 현상적 근거로 지축의 정립을 들었다. 先天에서 後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子午로 기울어진 지축이 丑未로 정립하여 온갖 모순이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에 의하여 360도의 正曆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文王卦의 象도 先天의 지축이 기울어진 것의 象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⁵⁾. 一夫는 지축의 정립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化翁親視監化事」에서 “嗚呼, 丑宮得旺, 子宮退位.”라 하여 이를 암시하고 있으며 「日極體位度數」에서도 “子寅午申先天之先後天, 丑卯未酉後天之先後天.”³⁶⁾이라 하여 子午의 축에서 丑未의 축으로 회복함을 말

26) 李正浩. 正易.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8. p.20.

27) 李正浩. 正易.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8. p.24. : 『正易』 金火四頌 “四九二七金火門, 古今天地一大壯觀, 古今日月第一奇觀.”

28) 李正浩. 正易.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8. p.76.

29) 楊在鶴. 정역사상의 현대적 이해. 주역철학과 문화. 2003. 1. pp.226-227.

30) 楊在鶴. 정역사상의 현대적 이해. 주역철학과 문화. 2003. 1. p.244.

31) 1元는 12會, 1會는 30運, 1運은 12世, 1世는 30年이라 하였다.

32) 楊在鶴. 정역사상의 현대적 이해. 주역철학과 문화. 2003. 1. p.247.

33) 李正浩. 正易.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8. p.28. : 『正易』 「金火五頌」에서 “一夫之基三百七十五度, 十五尊空, 正吾夫子之基, 當基三百六十日.”이라 하여 375度에서 15尊空을 제하고 360도로 정립됨을 설명하였다.

34) 楊在鶴. 정역사상의 현대적 이해. 주역철학과 문화. 2003. 1. p.250.

35) 楊在鶴. 정역사상의 현대적 이해. 주역철학과 문화. 2003. 1. p.256. : “정역의 선후천변화(자연변화=우주변화)를 ‘지축정립’으로 결론짓는 정역의 3세대는 이정호와 韓東錫이다.” “韓東錫에 의하면 문왕때는 지축이 경사된 모습에서 취상한 것이며, 정역때도는 지축이 정립된 입장에서 취상한 것이다... 이밖에도 승려였던 탄허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36) 李正浩. 正易.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8. p.50.

하고 있다. 이러한 지축정립은 開關 사상에서 출발한 것으로 一夫는 「十一言」에서 “天政開子, 地政開丑.”³⁷⁾이라 하여 後天開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 『宇宙變化의 原理』의 正易 관련 내용

1) 『宇宙變化의 原理』의 편제

전편 法則篇과 후편 變化論으로 나누어지는데, 전편은 서양철학의 세계관을 비판하고 동양철학의 우주관을 설명한 총론과 五行論과 運, 六氣論, 象과 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편은 우주 변화의 핵심을 설명한 土化作用, 寅申相火論, 金火交易論 등이 있으며, 이어서 우주 운동을 人事와 物質의 변화로 살펴보고 精神論, 本體論으로 마무리되며 마지막에 본인의 자서전과 같은 ‘신비의 행로’가 부가되어 있다.

후편의 土化作用, 寅申相火論, 金火交易論 3장은 韓東錫이 正易을 바탕으로 運氣論을 결합시킨 주요 부분이다.

2) 正易에 대한 韓東錫의 관점

韓東錫은 기본적으로 洛書原理를 바탕으로 한 文王卦의 象을 先天으로 보고 변혁을 거쳐 後天의 河圖로 복귀하는 正易學의 先後天 관점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그는 河圖와 洛書, 伏羲八卦와 文王八卦의 象數原理를 높게 보고 나아가 19세기말 金一夫의 正易에 대하여 문왕이후 3천년의 공업이 이에 이루어졌다고 하였다³⁸⁾. 그가 바라본 宇宙變化 原理의 밑바탕에는 기본적으로 正易思想 우주관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는 伏羲卦圖와 文王卦圖에 들어있는 象數原理에 대하여 “19세기의 말에 이것을 다시 金火交易의 실상인 정역태도로 옮겨놓은 것이 金一夫의 특출한 啓發인 것이다.”라고 贊하고 있다. 그가 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韓長庚으로부터 正易思想을 배우고 감명받은 것으로 보인다.

3) 金火交易論

韓東錫은 우선 河圖와 洛書를 비교하면서 金火交易을 설명하였다. 河圖에서는 4가 내부에 있고 9가 외부에 있어서 陽金[9]이 陰金[4]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圖上으로 보면 陽氣를 안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데 비하여, 洛書에서는 西方에 火가 옴으로 인하여 交易이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구도는 後天의 正易세계로 복귀하기 위하여 南方에 위치한 金이 西方에 위치한 火를 포장하여 수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西南方의 2火가 南方의 4, 9金과 더불어 西方의 7火를 수렴시키려고 하나 先天세계에서는 이러한 포장과 수렴의 힘이 부족하여 변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았다³⁹⁾.

「一夫의 交易觀」⁴⁰⁾에서는 文王圖는 우에서 좌로 가는 단순한 상극 운동이며 南方에서만 金火交易이 일어나지만, 正易圖에서는 卦의 방위마다 金火가 交易하는 象이라 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東北에 四金과 八木이 있는데 金木이 金火交易을 준비하고 있는 象을 표현하며, 東南에는 一水和 七火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交易을 준비하나 다만 5坤土가 위치하여 土의 선행작용이 있어야 交易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西南에는 九金, 三木이 있는데 九金이 三木을 포위하니 이는 곧 金火交易이 이루어지는 象을 말하며⁴¹⁾ 서북에는 六水和 二火가 있어서 역시 交易을 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에도 10乾이 土로 작용하여 辰戌丑未 중의 戌土 또는 坎水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正易卦는 伏羲卦처럼 變易의 상태로서 서로 대대 작용을 하고 있어서 離와 坎, 艮과 兌, 巽과 辰, 坤과 乾이 마주보고 짝이 되어 있다. 韓東錫은 이러한 正易卦의 對待 관계가 서로 本質이 변하지 않은 일종의 단순한 交易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本質이 같고 형상만 바뀌었다는 것은, 干支에서 對待하

37) 李正浩, 正易,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8, p.68. : 邵康節의 “天開於子, 地開於丑, 人起於人.”이라는 표현을 쫓은 것이다.

38)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4.

39)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79.

40)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p.257-258.

41) 여기서도 또한 西南方이 金火交易의 본래 자리임을 말하고 있다.

는 양자가 서로 합하여 각각 五運과 六氣를 만들어내는 對化 관계와 의미가 비슷하다.

또한 正易卦圖에서 辰坎艮의 陽卦⁴²⁾가 乾을 주체로 陰方에 있고 巽離兌의 陰卦가 坤의 주재하에 陽方에서 작용하는 것도 金火交易의 의도를 내포한 것이라 하였다. 즉, 陰方에 乾의 주도하여 陽卦가 배치되고 陽方에 坤의 주재하에 陰卦가 배치된 것은 地天泰卦의 象으로 그 자체로 조화를 이루는 後天交易의 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陰陽表裏가 서로 교차하는 三陰三陽의 象과 유사하다⁴³⁾.

韓東錫이 해석한 正易卦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金火交易의 의미는 우선 각 방위를 중심으로 서로 相克인 木-金과 水-火를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寅申少陽相火의 자리를 염두에 두고 西南方에서 金火交易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방위의 配는 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先後天의 交易 관계가 아닌 正易圖 자체로 交易象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 것이며, 또한 文王圖의 象數를 가지고 正易圖를 해석한 것으로서 正易의 象數 자체를 논한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다⁴⁴⁾. 또한 對待하고 있는 變易卦 사이에도 金火交易의 의미가 들어있으며 乾坤이 방위를 바뀌어 자리잡고 陰陽卦를 각각 거느리면서 섞여있는 것도 金火交易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4) 三極說

韓東錫은 “무극이 태극을 이루어 놓으면 그 속에 내포되었던 陽은 표면을 포위하였던 陰(形)을 擴張敷衍하면서 세계는 陽의 주도권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때에 온갖 모순과 대립이 나타나서 이 세계는 선악과 희비의 결전장이 되는 것이다.”⁴⁵⁾라고 하여 太極의 先天세계 전개를 설명하였고, “이와 같이

陽의 운동이 시간적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서 만물이 세분화되는데 그 세분화 작용이 極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황극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극에 이르는 준비과정의 끝이 바로 황극인 것이다. 즉, 甲의 끝[先]이 황극이고 己의 시작이 무극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은 황극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태극에서 化生을 시작하는 바 무극이란 바로 그들의 主宰者인 것이다.”⁴⁶⁾라 하여 無極의 끝에서 皇極이 통일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또한 無極과 太極의 관계를 “一無十無體, 十無一無用”라 하여 서로 전화하는 관계로 설명하였다. 또한 十과 一의 상을 들어서 “-’과 ‘|’이 相交하는 점에 만물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뜻(象)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정신이 교역하는 金火交易의 문이다. 無極의 中이며 己土의 心이며 十十一의 空을 창조하는 곳인 것이다.”⁴⁷⁾라 하여, 정신적 交易을 이루어 無極의 10의 세계로 들어가는 후천개벽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無極에 대한 설명은 皇極이 비록 無極의 본체이기는 하나 皇極, 太極 모두 無極의 소양을 받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一, 五, 十은 각각 太極, 皇極, 無極을 상징하는데 이중 五와 十은 각각 萬物을 生하는 中과 萬物을 통일하는 中을 말한다. 5數를 中數로 하여 우주변화의 度數를 정하는 경우에는 80도에 머물게 되는데 韓東錫은 이를 成數의 기본인 十수가 없기 때문으로 설명하였고, 無極의 10數를 中數로 한 경우에는 360도를 모두 완성하게 되어 正曆의 度數가 성립된다고 하였다⁴⁸⁾.

5) 開關과 지축정립

韓東錫은 ‘本體와 作用變化’를 설명하면서 天地의 開關과 지축의 정립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선 開關의 정의에 대하여 “인간의 호흡도 개벽운동이요, 1일의 晝夜나 1년의 춘하추동이나 尺蠖의 屈伸이나 龍蛇의 飛蟄도 모두 개벽운동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불

42) 三劃卦에서 陽劃이 하나이고 陰劃이 두 개인 것이 陽卦이며 그 반대를 음괘로 본다.

43) 三陰三陽의 순환에서 처음 三陰 단계는 陽運動의 주도하에 陰形이 자라는 것을 상징하며, 후반의 三陽 단계는 陰運動의 주도하에 陽氣가 수렴되는 것을 상징한다.

44)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259.

45)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44.

46)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45.

47)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7.

48)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203.

구하고 인간은 이것을 개혁운동인 줄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⁴⁹⁾라고 하여 開關의 개념을 일반화 하였다. 이러한 開關은 정해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邵康節의 元會運世의 법칙을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邵康節의 一元은 129,600년이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미세한 곳까지 추리한다고 하면 기본점인 一元은 1일에도 1시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⁵⁰⁾. 이와 같이 一開一關하는 것이 중국에 이르게 되면 개혁조건에 변동이 일어나 운동에 이상이 생기므로 자연적으로 大開關이 일어나게 된다고 보았다.

韓東錫은 또한 『正易』의 「日極體位度數」에서 “先天三天兩地, 後天三地兩天.”⁵¹⁾의 내용을 들어 天地變化는 先天과 後天을 오가면서 三天兩地和 三地兩天의 양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先天지축도를 현재와 같이 西南과 東北으로, 後天지축도를 반대로 西北과 東南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았을 때 각각 東方에서부터 올라오는 陽氣의 성쇠에 차이가 생기므로, 先天은 天의 陽氣가 많아지고 後天에는 地의 陰氣가 많아진다고 본 것이다⁵²⁾. 또한 지축이 정립한 경우를 ‘후천말지축도’라고 하고 三地兩天의 후천지축도를 ‘선천말후천초지축도’라 하여 지축이 지금과 반대로 東南-西北으로 기울어진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先天과 後天을 상징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지 관념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정립이 일어나는 후천지축도(韓東錫이 말한 후천말지축도)가 완성되기에는 요원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후천의 변혁 속에서 지축이 정립되면 현상세계의 모든 모순들이 해결되어 서로 융화를 이루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宇宙變化의 原理』에서는 기본적으로 正易의 先天後天觀을 바탕으로 後天開關

을 지향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正易思想의 핵심내용을 따라 三極論에서 皇極과 그 밑바탕이 되는 無極을 중시하였으며, 金火交易과 지축정립의 원리를 설명하였고, 윤력의 바탕이 되는 數의 변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宇宙變化의 原理』에서 正易思想 자체를 논하고 설명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⁵³⁾ 正易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土化作用과 寅申相火作用을 거쳐 金火交易으로 귀결하는 자신의 독특한 宇宙變化 原理를 설명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따라서 金火交易의 설명에 있어서도 先天과 後天의 상호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金火交易의 형식보다는 正易 卦圖 자체가 가지고 있는 金火交易의 요소, 그리고 이와 관련된 12地支 氣化作用을 배경으로 한 金火交易 변화 과정에 자신의 설명이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밖에 文王卦圖가 이미 先天의 기울어진 지축을 象한 것이라고 본 것과, 후천지축과 후천말지축을 나눈 것도 독특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包五舍六에 대하여 一夫의 十干原圖로서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12地支의 운동변화를 先後天의 지축변화에 따라 三元五元說을 제시한 것도 흥미롭다.

3. 運氣學說의 결합

戰國末期 또는 前漢期에 성립되었다고 알려지는 韓醫學 최고의 전적인 『黃帝內經』에는 唐代 王冰이 補入한 運氣七篇이 포함되어 있다. 이 七篇은 제작 연대가 다른 편에 비하여 수백년 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內經』 運氣學의 목적은 해당 年의 干支 변화에 의하여 나타나는 五運과 六氣의 主客 작용을 살펴서 氣候 및 物象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데 있다. 이론의 핵심은 十干과 十二支가 가지고 있는 본성 이외에 對待하는 干支 사이의 正化 및 對化 작용⁵⁴⁾에 의하여 2차적으로 運와

49)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391.

50)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393.

51) 李正浩. 正易.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8. p.50.;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396.

52)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37. : 여기에서도 지축의 경사로 인하여 十干 중 陽行이 6이고 陰行이 4이므로 三天兩地의 상황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53)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259.

54) 『內經』 運氣篇에서는 五運[中運]과 六氣의 氣化를 설명하면서 對待 위치에 있는 主客관계의 天干이나 地支가 합하여 형성되는 것을 설명하였고 따로 正化, 對化를 대비하여 설정하지 않았다. 宋代 최초의 運氣學 전문서인 『素問入式運氣論奧』에서 처음으로 地支의 正化, 對化를 설명하였

氣가 발양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五運六氣를 주도하는 客氣의 三陰三陽 운동변화에 있다. 十干의 對待 작용은 土運이 선도하며, 十二支의 對待 작용은 少陰君火가 선도한다. 그러나 만물의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六氣 중 客氣의 경우에는 寅申少陽相火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 三陰三陽 개념은 우주 및 생명체의 陰陽五行 변화를 表裏와 形氣의 양면 관점으로 관찰하여 정립한 개념으로서, 생명체를 대표하는 인간의 變化象을 관찰하여 도출한 『黃帝內經』의 특출한 개념이다.

韓東錫은 이상의 運氣學 핵심 내용을 正易思想에 접목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宇宙變化 이론을 주장하였다. 正易의 핵심인 金火交易과 後天開闢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黃帝內經』의 運氣學 이론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韓醫學과 陰陽五行論

韓東錫은 『內經』에 대하여 “伏羲圖 3천년에 文王圖가 나왔고 문왕도 3천년에 正易圖가 나오므로 인하여 天垂象 物受形하는 우주의 원리는 변화의 모습을 노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黃帝 이후 5천載의 ‘수수께끼’였던 『內經』은 드디어 비밀의 장막을 거두게 되고 五運과 六氣의 법칙은 드디어 象과 數를 開發하는 役軍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⁵⁵⁾라고 하여 본인의 독특한 宇宙變化에 대한 原理論의 밑바탕에 『內經』 運氣學에 대한 깊은 담구가 있었음을 말하였다.

또한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실제로 우주의 상을 찾으려면 그 설계에 의하여서 가장 찾기 쉬운 대상을 먼저 선택하여야 한다. 즉, 우주에서 직접 찾는 것보다 오히려 인체에서 찾는 것이 빠르고 또한 용이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의 법칙과 상(三卦圖의 象)을

인체에 비겨서 볼 때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그 범주의 밖에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⁵⁶⁾라고 하여 近取諸身 遠取諸物의 의미로 인체를 바라보고 있다.

인간으로 대표되는 모든 생명체가 運動變化하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생명체는 形과 氣의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양자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운동한다는 점이다. 精神도 물론 形과 氣의 상관 운동 속에 섞여 변화하지만 形氣가 이를 대표하여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韓東錫은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황극은 무극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주라는 형이상적 입장에서 보면 氣의 종합과 분열의 象이지만 人物이라는 형이하적 입장에서 보면 形체의 生長老死인 것이다.”⁵⁷⁾이라 하여 生長收藏을 강조하였다. 形과 氣의 순환은 거시적으로 보면 인간의 生老病死로 나타나지만 미시적인 생명활동에서 보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체의 生長收藏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生長收藏은 陰陽五行의 순환운동으로 나타나는데 韓東錫은 철저히 陰陽의 성쇠와 五行의 순환에 기반하여 세상을 바라보았으며 正易學에 대한 해석에서도 많은 부분 이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한의학을 비롯한 모든 운동변화 원리는 곧 ‘陰陽五行의 運動變化’라는 하나의 문구로 정리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희씨의 象數 발견이 이미 50세기 이전에 벌써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이 세상에 대두하게 되자, 이것이 文王, 周公, 孔子를 거쳐서 易學大系를 이루었고 다른 쪽으로 伏羲, 箕子, 老子, 公孫龍子, 鄒衍 등을 거쳐서 음양오행의 변화원리를 형성하여 놓았던 것이다.”⁵⁸⁾라고 하여 易學 이외에 陰陽五行 연구의 전통이 오래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五行論은 木火土金水 각각의 相生 및 相克 관계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韓東錫은 萬物의 운행변화를 설명하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相生의 변화가 五行論의 핵심이 되며, 이러한 相

다. 즉 子午少陰君火의 경우 南方午가 火에 속하므로 같은 火인 少陰君火는 午에서 正化하고 子에서 對化한다. 그러나 여전히 五運의 氣화에 대해서는 正化, 對化를 언급하지 않았다. 韓東錫이 對化理論은 이러한 正化, 對化를 엄두에 둔 것이 아니고 對待에 위치해있는 干支나 卦가 서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통칭한 것이며, 이와 반대로 스스로 化하는 것을 自化라고 하였다.

55)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4.

56)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p.14-15.

57)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46.

58)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p.55-56.

生變化의 본질과 양상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宇宙의 變化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본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五行의 상호 견제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이 또한 전체적인 五行相生 순환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韓東錫은 또한 五運六氣學의 관점에서 陰陽五行論을 바라보았는데 天干과 地支의 對化作用, 五運과 六氣의 상호 관계, 相火의 작용 등을 중시하였다. 예를 들면, 天干 중에 甲木, 乙木의 형제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인 甲己가 합하는 對化作用에 의하여 土運을 만들어내며 계속하여 乙庚合金 등 五行의 순서로 五運을 생성한다⁵⁹⁾. 地支의 경우는 子午少陰君火부터 六氣 중의 客氣가 만들어지는데 전체적으로 厥陰,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의 三陰三陽 순환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五運은 十干에 기초하고 六氣는 十二支에 기초하여 서로 本末 관계에 있으며, 運과 氣 각각 주체와 객체로 과생되어 상호 작용한다. 五運과 六氣의 상호 작용 중에서 바로 寅申少陽相火의 작용이 매우 중요한데 少陰君火가 先天의 분열을 야기하는 火라면 相火는 後天의 통일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運氣學的 陰陽五行論을 바탕으로 韓東錫은 총론에서 五行과 運, 六氣論 등을 전개하고, 후편에서는 正易思想과 결합하여 宇宙變化의 原理를 설명하게 된다.

2) 宇宙變化에 대한 설명

韓東錫은 宇宙 운동의 요인에 대하여 “土化作用이 相火를 거쳐서 金火交易을 완성하려는 운동”⁶⁰⁾이라고 규정하였고, 또한 “우주의 변화란 것은 土化作用으로써 본체가 되고 相火作用으로써 객체를 이루고 金火交易作用에 의하여 완성된다.”⁶¹⁾라고 하였다.

59) 韓東錫은 스스로 化하는 것을 自化라 하였고 다른 대상과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化하는 것을 對化라 하였다. 또한 五運은 반드시 土의 작용이 있어야 木火金水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自化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六氣는 4개의 土가 12地支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自化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60)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213.

61)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214.

여기서 土化作用은 無極에서 太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陰道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말한다. 이후 先天 세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相火라는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쳐 金火交易으로 귀결하게 된다.

이러한 變化의 요인을 주로 12地支의 운동으로 설명하였는데, 12地支의 방위를 중심으로 하는 本中末 운동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子午卯酉가 中이 되고 각각의 진후에 배치된 地支가 本과 末이 된다⁶²⁾. 그러나 宇宙變化의 土化作用 중 三元運動에서는 子丑寅 운동부터 시작된다⁶³⁾.

金火交易의 원동력에 대하여 앞에서 韓東錫은 正易卦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金火交易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여기서는 12地支의 순환원리인 三元運動을 통하여 金火交易의 본질과 동력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 이유는 先天에서 後天으로 바뀌는 交易의 개념이나, 文王圖와 正易圖가 각각 가지고 있는 交易의 象들과는 달리,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현실의 陰陽五行 변화 속에서 늘 항상 벌어지고 있는 交易의 발생에 주목한 것이다. 우선 韓東錫의 宇宙變化觀의 핵심 중에서 土化作用과 寅申相火論을 살펴보고⁶⁴⁾ 그가 설명한 三陰三陽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① 土化作用

韓東錫은 土化作用을 無極에서 太極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未土를 중심으로 陰道의 세력권을 형성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후 陰道의 세력권을 중립성을 잃고 後天的 통일과정인 소투쟁을 일으키고, 이 결과 土에 내포되었던 陽氣가 陰氣의 포위를 당하게 되는 것을 상화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無極은 律呂運動을 완성하여 太極으로 변하게 되는데 太極은 이후 陰陽作用을 통하여 투쟁의욕을 발휘하여 현실계의 모순대립을 형성한다는 것이다⁶⁵⁾.

62)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59.

63)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215.

64) 韓東錫의 「金火交易論」은 앞에서 설명한 것을 참고하기 바람.

이러한 土化作用에 대하여 韓東錫은 十干의 ‘甲己合土’⁶⁶⁾가 아니라 주로 12地支의 六氣 氣化作用으로 인해 나타나는 辰戌丑未의 土化作用으로써 설명하였다. 土化作用은 宇宙變化를 일으키는 黃婆 역할을 하는데, 이때 土는 丑辰의 陽土와 未戌의 陰土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발전을 선도하고 후자는 통일을 매개하게 된다⁶⁷⁾.

陽土가 발전을 선도하더라도 무조건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土化作用의 본래 의미는 皇極과 마찬가지로 조절에 있으므로 丑土는 子丑寅 三元운동⁶⁸⁾의 중에 위치하여 子水로부터 陽氣가 발양될 수 있도록 조화하며 모순을 조절한다. 다음으로 辰土는 東南方に 위치하여 生과 長을 모두 관여하므로 卯木이 正易圖上에서 四金, 八木의 투쟁을 일으킬 때에 이를 조절하며 水土의 同德으로 만물을 기르고 번성하게 한다. 午未申 三元운동 중의 未土는 통일의 매개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토로서 丑土의 對化作用을 유인하기도 한다. 따라서 통일 능력이 없는 丑辰의 土를 五土로 규정하고 통일 능력을 가진 未土를 十土로 규정하였다. 또한 文王圖에서는 이 未土의 위치에 2火가 와있어서 火의 힘이 강하여 未土의 통일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였다. 戌土의 경우는 水土가 合德하는 象으로서 통일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戌은 潛藏하는 空의 개념으로 萬物의 核이며 精神의 本體가 된다.

65)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43. : “무극이 태극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동질적인 분과작용을 일으키면서 陰道의 세력권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土(未)의 작용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세력권의 형성은 중립성을 변화시켜 소위 후천적인 統一過程으로서의 小鬪爭을 일으키게 되고 투쟁의 결과로서 토가 지녔던 바의 陽氣는 포위당하게 되고 陰氣를 이것을 포위하게 마련인 바 이것이 바로 相火의 과정인 것이다. 淸氣가 완전히 포위당하게 되면 무극은 율려운동을 완성하면서 태극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變成한 태극은 다시 투쟁의욕을 내포하게 된다. 거기에서 태극은 자기 자체의 본성을 발휘하여 현실계의 모순대립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니 이 작용을 陰陽作用이라고 한다.”

66)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p.119-120.

67)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215.

68) 先天의 地支 本中末 三元운동은 근본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지축의 기울어짐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土化作用은 궁극적으로 少陽相火의 작용을 거친 후 金火交易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궁극에 다다르면 皇極의 활동이 끝나고 無極이 시작되는 己土⁶⁹⁾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하였다⁷⁰⁾.

지축이 경사지는 모순으로 인하여 丑辰未戌의 위치가 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게 된다. 이러한 先天의 운동을 三元運動이라 하고 後天에서 지축이 正立하면서 나타나는 이상적인 土化作用을, 先天의 三元運動에 대비하여 五元運動이라 하였다. 五元運動이 일어나면 子水, 亥水가 통합되고 寅木, 卯木이 통합되고 午火, 巳火가 통합되고 酉金, 申金이 통합된다. 지축정립의 亥子丑寅卯, 巳午未申酉의 五元운동에 와서야 비로소 陰陽運動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韓東錫은 『正易』 「十五歌」에 나오는 三元과 五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고 하였다⁷¹⁾. “그러므로 一夫 선생은 오원운동을 하는 우주를 賞讚하는 노래를 읊었던 것이다. ‘三元五元兮 上元이 元元이로

69) 楊在鶴. 정역사상의 현대적 이해. 주역철학과 문화. 2003. 1. p.238. : “갑으로 시작하는 선천6갑이 후천에는 기에서 시작하면서 선후가 바뀌는데 무슨 선천에서는 5황극이지만 후천에서는 10무극이 되며, 기는 10무극이면서 1태극이 되는 것이다.”라 하여 後天의 己로 넘어가기 전의 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戌位와 己位에 대해서는 『正易』 「十五一言」 “戌位度順而道逆, 度成道於三十二度, 後天水金太陰之母. 己位度逆而道順, 度成道於六十一度, 先天火木太陽之父.”(李正浩. 正易.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8. p.10)라 하여 戌는 後天太陰의 어머니이며, 己는 先天太陽의 아버지임을 말하였다.

70)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pp.45-46. : “태극의 外化作用은 무극의 內變作用과는 반대로 形體와 氣를 擴張하면서 分散하는 것이며 陽道의 작용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하던 때의 主靜勢力이던 陰氣가 여기에 오면 그 세력을 잃고 도리어 분산되어야 할 운명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음양의 승부작용이라고도 하고 또는 相克作用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陽의 압박으로 인하여 분열되는 陰氣는 前進함으로써 분열의 極에 이른즉 그 성질은 도리어 純化되어서 음양을 구별할 수 없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己土라고 하는 것이다.”

71) 李正浩. 正易.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8. p.60. : 『正易』 「十五歌」 “水火既濟兮水火未濟, 既濟未濟兮天地三元, 未濟既濟兮地天五元, 天地地天兮三元五元, 三元五元兮三元元元, 三元元元兮十五一言, 十五一言兮金火而易, 金火而易兮萬曆而圓, 萬曆而圓兮咸兮恒兮, 咸兮恒兮兮十兮五兮.”

다' 한 것이 바로 그 노래인데 이것은 삼원운동이 지양되고 오원운동이 들어오는 후천 上元世界를 찬미한 것이다.”⁷²⁾라고 하였다. 이 부분의 三元과 五元에 대해서 李正浩는 원리적으로 三五錯綜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⁷³⁾.

韓東錫이 바라본 土化作用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陰道의 세력을 형성하여 無極에서 太極으로의 변혁을 만들어내는 黃婆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陰道의 세력이란 河圖의 原理가 가지고 있는 균등하고 안정적인 象에서 출발한다. 이후 太極으로 변화하면서 중립성을 잃고 불안정한 三元運動을 시작하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도 辰戌丑未의 土는 여전히 조정작용을 지속하여 궁극적으로 金火交易을 이루게 된다. 己土의 경우에도 太極의 陰陽運動이 정점에 이르러 10無極이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韓東錫은 이를 분열과정 속에서 陰形을 확장하는 陽道가 중국에 다다라 金火交易이 일어나기 순간의 土 자리로 보았다. 이상의 土化作用은 5皇極의 조절작용과 매우 유사하며 공평하고 중립적인 세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無極과 맥락이 닿아있다.

② 寅申相火論

相火는 원래 『黃帝內經素問』에 나온 개념으로 「天元紀大論」에서 “君火以明, 相火以位”라고 하였다. 즉 相火는 君火를 도와서 실제 일을 집행하는 자리[位]에 있음을 말하여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氣 순환을 주관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火로 인식되어 왔다. 韓東錫도 相火는 君火를 돕는 火로서 發散을 주도하는 君火를 도와서 氣를 종합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⁷⁴⁾. 이는 특히 寅申 중에서 申이 서방에 있는 金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君火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寅申相火論」에서는 相火를 “우주가 造化작용을

하는 주체를 土라고 하고 그 객체를 相火라고 하는 바 그것은 바로 金火交易作用(즉, 조화의 완성)의 과도기적인 존재양식”으로 정의하고 있다⁷⁵⁾. 여기서 과도기적 존재양식이란 相火가 先天세계 모순의 산물인 동시에, 君火를 도와 조절함으로써 金火交易에 이르게 하는 필연적인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五行에 기반을 하지 않은 無根之火⁷⁶⁾ 즉 相火가 생기게 된 원인은 지구의 축이 경사진 것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中庸之德을 가진 辰戌丑未의 土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子午卯酉가 四正中을 이루고 있으므로 宇宙는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리를 잃은 未土만으로는 土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相火[申]의 보조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先天의 경우 申은 西方에 오히려 가까우므로 자신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相을 正四方을 돕는 자리[位]로 보고 설명하였는데, 先天에서 子午卯酉가 四正일 경우에는 寅申巳亥가 相의 자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後天에서 辰戌丑未가 四正일 경우에는 같은 자리의 子午卯酉가 相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⁷⁷⁾.

先天에서 중시되는 無根之火인 相火를 렌즈에 반사된 복사열에 비유한 것은⁷⁸⁾ 실제 감각적으로는 뜨거운 火로 느끼지만 본질적으로 虛象이라고 보는 것이다. 韓東錫은 이를 『墨子』의 내용을 인용하면서⁷⁹⁾ “金水之氣가 거울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7, 8월에 炎暑가 들어오게 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염서는 그 실력으로 따지면 君火에 비해서 아주 무실력자이다. 그러나 전체가 이와 같이 렌즈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에 있어서는 오히려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니 이것을 寅申相火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다.”⁸⁰⁾라고

75)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235.

76) 相火는 다른 六氣와 달리 五行의 本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無根之火라고 한다.

77)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59. : 이는 辰戌丑未를 제외하고 先後天의 변화 과정에서 正方に 있지 않는 地支를 말한다.

78)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p.244-249.

79) 韓東錫은 『墨子下經』의 “二臨鑑而立, 景到, 多而若少, 說在寡區.”와 “鑑位景, 一少而易, 一大而正, 說在中之內外, 鑑團景一.”이라는 구절로 寅申相火의 실현을 설명하였다.

72)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228.

73) 李正浩. 正易研究. 서울, 國際大學附設人文社會科學研究所. 1976. p.113. : “三元과 五元이 上元의 元元으로서 十五一言을 이룬다면 그것 또한 原理의인 三五錯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 하였다.

74)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56.

설명하였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韓東錫은 相火를 金火交易作用의 과도기적 존재양식으로서, 金水가 火를 포위하여 수렴하는 과정에서 相火가 西方金의 힘을 바탕으로 그 준비를 하게 하는 것뿐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지구의 조건이 바로 金火交易을 허용하지 않아서 잠시 無根之火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相火의 작용은 土의 단계에서 융합되어 形 속에 가두어 둔 氣를 실제로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산화작용을 통하여 소멸과 생성이 동시에 일어나 결과적으로 良質의 氣를 수렴하여 들어오는 현상적으로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것은 인체의 形氣 變化象을 관찰한 결과로 유추된 것이다.

③ 三陰三陽論

三陰三陽은 『黃帝內經』 運氣篇에 나오는 내용으로 木火土金水의 五行運動을 表裏로 나누어 설명하는 개념이며 陰陽運動과 五行運動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다⁸¹⁾. 즉, 厥陰風木, 少陰君火, 太陰濕土, 少陽相火, 陽明燥金, 太陽寒水의 순서로 三陰三陽이 순환한다⁸²⁾. 이때 五行은 六氣의 운동으로 분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少陽相火가 생긴다⁸³⁾. 六氣가 化生하기 이전에는 단지 午의 운동이라는 原理의 상징성만이 드러났으나, 三陰三陽의 변화를 거치면서 생명체의 形과 氣를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즉, 전반부의 三陰變化는 陽이 주도하지만 곧 形質의 成長變化이고, 후반부의 三陽變化는 陰이 주도하지만 氣의

收斂變化이다. 이러한 三陰三陽 六氣變化는 전체적으로 少陽相火가 주도한다⁸⁴⁾.

三陰三陽의 순환은 東南方에서 厥陰風木부터 시작하는데 表裏陰陽이 서로 바뀌어져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韓東錫은 “동남에서 양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본질에 대한 관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음운동이라고 한 것은 그의 작용면을 논한 것이다.”⁸⁵⁾라고 하여 體用理論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事物形質[陰]의 成長은 陽運動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氣[氣]의 통일과 창조는 陰運動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三陰三陽의 變化를 변화에 대하여 “앞에서 필자가 무극에서 태극에 이르는 變의 과정을 설명할 때 단순히 氣의 통일작용에 관해서만 논했다. 그러나 이것은 우주운동이 어떻게 變에서 化로 옮겨지는가 하는 형이상적인 면만을 말했던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하였는가 하면 무극 이후는 氣로서 統一하는 성숙의 길이요, 태극은 形을 분열시키는 생장의 길이이다. 그러므로 陰作用을 주로 하는 무극에서는 그 목적이 氣의 종합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했던 것이다.”⁸⁶⁾라고 하여 形의 분열과 氣의 통일 과정을 太極[皇極]에서 無極으로 전환되는 것에 비유하였다.

三陰三陽論과 마찬가지로 體用論을 바탕으로 하여 表裏 모순에 대한 인식하는 것, 그리고 陽運動과 陰運動에 대하여 시공간으로 다른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 등은 易學에서 事物의 原理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주요 내용들이다. 이는 一夫가 十干原道數에서 十干的 방향을 반대로 그린 것과 유사하다⁸⁷⁾. 韓東錫은 일부의 十干原道를 十干方位圖와 비교하여 “십간 원도는 木火의 氣를 통일하려는 그림이요, 방위도는 金水의 氣를 분산시켜려는 그림이다. 金水を 분화하려는 것은 생장의 과정이요, 木火를 통일하려는 것은 생장을 정지시키려는 것인즉 이것은 成의 과정이다

80)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248.

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4, 236.

82) 이 순서는 비록 六氣 중 客氣의 순서이지만 六氣變化는 客氣가 주도하므로 이것이 본질적인 三陰三陽 순환의 순서가 된다.

83)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51. : 이에 대해 韓東錫은 “天干은 幹에 불과한즉 그것은 만물화생의 基幹일 뿐이고 아직 행동할 만한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것이므로 四物化生의 명칭인 三陰三陽의 개념을 부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우주의 운동은 삼음삼양의 운동인즉 六氣가 化生하기 전에 있어서의 五의 운동이라는 것은 아직 상징적인 관념에 불과한 것이다.”라 하였다.

84) 少陰君火는 陰의 形質을 밖으로 밀고나가는 역할을 하지만 相火는 太陰濕土에서 받아들인 陽氣와 陰質을 태워서 精氣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85)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55.

86)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45.

87) 李正浩. 正易.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8. p.90.

.”⁸⁸⁾라고 하여 우주 운행의 모순 대립을 설명하였다.

韓東錫은 正易의 先後天觀과 金火交易論 기초로 하여 運氣學의 陰陽五行론을 결합하여 자신의 독특한 宇宙變化觀을 전개하였는데, 그중 기존의 正易思想과의 차이점이나 새롭게 계발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黃帝內經』 運氣篇에 나오는 天干 地支의 對化作用을 金火交易의 과정과 결부시켰다는 점이다. 그 결과 土化作用과 寅申相火作用을 바탕으로 金火交易의 필연성을 설명하였고, 여기에는 12地支의 本中末 운동이 근거의 세부 단위가 되었다. 그러나 土化作用도 궁극적으로 無極에 기반한 皇極의 우주변화 주도와 동일한 의미이며, 少陽相火도 西南方에 위치하여 先天과 後天 사이의 金火交易을 과도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韓東錫의 새로운 주장들은 正易思想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金火交易의 세부적인 과정을 내용적으로 부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韓東錫이 正易思想을 새롭게 계발한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인체변화의 象을 관찰하여 이를 正易思想에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는 인간은 形과 氣의 양면을 가지고 끊임없이 生長收藏하며 生老病死의 길을 걷고 있다. 陰陽과 五行의 변화성쇠 개념을 종합한 三陰三陽의 象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形氣變化를 표현한 것이며 韓東錫은 이를 바탕으로 先後天 金火交易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이는 단순히 인간에서 取象하여 天理를 풀어보려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金火交易의 원리를 인간의 정신과 몸에 투영함으로써 인간의 복지와 행복, 나아가 인간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데까지 이르려는 적극적인 시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즉 우주론에서부터 출발하여 실존적인 인간의 차원으로 귀결하여 原理的으로 相通함으로써, 시대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당시에 一夫의 正易思想이 출현하게 된 이유도 크게 보면 종교적 변혁에 대한 기대나 혹은 역학연구의 탐구보다는 이러한 실질적인 天人相應 思想運動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88)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p.250-251.

또한 韓東錫이 陰陽의 성쇠와 五行의 변화 양상을 통하여 正易卦를 해석하려 한 것은 一夫가 주창한 變易으로의 회복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金火交易의 개념을 현실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생태학적인 生長收藏의 측면으로 바라봄으로써⁸⁹⁾ 萬物生後 현실의 삶 속에서 先後天間의 개혁이 일어난다는 一夫의 근본사상을 더욱 확대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結論

韓東錫은 正易에 기반하여 宇宙變化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제시하였고 金火交易에 대해 새롭게 해설하였다. 그는 비록 正易學者인 韓長庚으로부터 正易의 原理를 배웠으나 正易學에 중심을 두고 발전시킨 연구자는 아니었으며, 正易을 『黃帝內經』의 運氣理論과 결부시켜 새롭게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正易을 현실에 응용하려 한 실용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正易이라고 하는 시간변화에 기반을 둔 우주론을 인간의 形氣 변화에까지 연결시켜 설명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正易思想을 天人相應論의으로 증명하고 현실적으로는 後天開關의 당사자인 인간이 개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변혁해 낼 수 있는 전환점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三陰三陽으로 표상되는 인체 形氣의 陰陽五行變化는 一夫가 말하는 先天세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인간이 끊임없이 金火交易과 後天開關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宇宙變化에 대한 그의 해설은 주로 시간의 변화 속에서 陰陽五行의 각 요소가 서로 밀고 당기며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현실 속에서 일정한 법칙성을 이끌어내려고 한 것이다.

그가 제시한 ‘土化作用과 寅申相火作用에서부터 이어지는 金火交易’은 멀게 보면 萬曆의 시간 흐름 속에서 벌어지는 正易의 開關原理를 좀 더 자세히 설명

89) 향후 연구에 대한 기대는 韓東錫이 少陽相火의 金火交易 작용을 卦와 干支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실제 인체의 精氣神혈의 순환출입 변화에서 取象하여 相火의 산화작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주만물의 변화를 이해하고 연구해나가는 데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 것이지만, 가깝게는 각 개인이 이를 인식함으로써 짧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여야 후천개벽에 주체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가를 자각하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韓東錫이 제시한 土化作用, 寅申相火論, 12地支의 本中末運動, 後天지축 등 여러 가지 새로운 해석들은 正易思想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든 면도 가지고 있으나, 그가 天人相應 사상을 근거로 하여 인체 변화의 象으로부터 도출된 陰陽五行 原理를 가지고 易學을 해석한 것은 易學의 원리를 반대로 인간의 삶속에 투영하여 현실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參考文獻

<논문>

1. 남명진. 정역사상의 근본문제와 선후천변화원리에 관한 고찰. 종교교육학연구. 1998. 7. pp.7-27.
2. 楊在鶴. 정역사상의 현대적 이해. 주역철학과 문화. 2003. 1. p.238, 244, 250, 256. pp.222-223, 225-227, 231-232, 235-236, 246-247.
3. 유남상. 역학의 역수성통원리에 관한 고찰. 충남대인문과학연구소논문집. 1984. 11(1). pp.125-141.
4. 李正浩. 正易의 출현과 그 인간혁명에 대하여. 한국학보. 1977. 7. pp.137-149.
5. 이현중. 正易의 간지도수 원리. 동서철학연구. 2003. 27. pp.39-64.
6. 이현중. 주역의 성명지리. 범한철학. 2003. 29. pp.157-184.
7. 이현중. 『正易』의 한국사상사적 위상. 범한철학. 1999. 20. pp.247-269.

<단행본>

1. 윤종빈. 正易과 周易. 서울. 상생출판. 2009. pp.21-35.
2. 李正浩. 正易.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8. p.10, 20, 24, 26, 28, 50, 60, 68, 76, 78, 80, 90. pp.6-7, 18-19.

3. 李正浩. 正易研究. 서울. 國際大學附設人文社會科學研究所. 1976. p.65, 113.
4. 周易. 서울. 保景文化社. 1986. p.92, 640.
5.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7, 137, 151, 156, 179, 203, 228, 235, 391, 393, 396. pp.14-15, 43-46, 55-56, 119-120, 213-215, 244-259.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4, 236.